

불서광장



‘금과옥조’ 걸렸어도 뜻 모르면 ‘팡’ 인걸
 <마음으로 찾는 절집여행 산사의 주련>은 절 기둥에 걸린 주련을 해설하고 있다. 누구나 주련을 보면 뭔가 심오한 뜻을 가진 글귀 같은데 도대체 읽고 해석할 수 없으니 답답했을 것이다. 금과옥조가 걸려 있어도 뜻을 모르니 ‘팡’ 인 거다. 책은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러 절에서 자주 쓰는 주련의 내용을 쉽게 풀이 했다. 아름답고 정겨운 산사의 풍경은 덤이다. 제문 스님, 한민 지음/청년정신 펴냄/1만5500원.



절을 하면 절로 살 빠지고 운동이 된다?
 <108번의 내려놓음>은 108배를 가장 잘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가장 잘 한다는 것은 가장 큰 효과를 낳는 법이란 말이다. 그렇다면 108배는 수행인가 기도인가 아니면 운동인가 하는 물음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복잡한 생각은 접어두자. 우선 하루 15분 몸을 움직여 108번의 절을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라. 일단 도전 한다면, 스스로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이므로. 표민석 지음/랜덤하우스퍼넬/1만1000원.



청정한 수행이 주는 청량한 소식들
 <내 안의 풍경>은 비구니 청호 스님이 그려내는 풍경이다. 스님의 마음 안에 그려지고 있는 일상의 풍경들은 맑다. 맑은 글은 생각이 맑고 행동이 맑은 곳에서 나온다. 절기가 바뀌는 것도 맑은 생각으로 바라보고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도 옥식을 제하고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청정하게 그려질 수 있다. 자연을 경전으로 바라보는 경건함과 청순함의 맛은 그 풍경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청호 스님 지음/청어 펴냄/9000원.



두 형제의 구도 이야기 그리고 '인연'
 <꿈속의 인연들>은 구도소설이다. 해인사 통도사에서 강사를 하다가 전국의 선방을 다니며 참선 정진 하고 기림사 북암에서 6년간 묵언 수행을 했던 기후 스님이 소설을 쓴 까닭은? 소설은 두 형제가 절집에 들어와 청명하게 공부하면서 진리의 길을 알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신을 길러준 은사 스님이 할아버지의 제자라는 기원과 주인공의 범상치 않은 열반이 '인연'의 깊이를 알고 간다. 기후 스님 지음/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1만 2000원.



생활 속에서의 알아차림, 명상의 길잡이
 <마음을 풀어주는 명상>은 명상 안내서다. 저자가 20년간의 불교명상 경험을 토대로 했다. 영국 출신의 선 수행자인 저자는 “명상은 생활에서 겪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이며 생활 하고 있는 공간을 알아차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모든 수 수께끼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라 말한다. 명상의 마음가짐, 신체의 자세, 그리고 호흡과 느낌 등을 안내한다. 다이애나 스톨 지음/홍종욱 옮김/지혜의 나무 펴냄/1만원.



행복에 이르는 길을 막는 장애물 걷어내기
 <육바라밀>은 여섯 가지 바라밀 행의 실천 지침이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여섯 가지 실천 과제는 불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기본교리다. 그러나 실천되지 않는 교리는 꽃을 피우지 못하는 고목일 뿐이다. 저자는 탐진치 삼독이 육바라밀행을 막는 근본 요인으로 보고 그 장애를 극복하는 길을 제시한다. 권영택 지음/정우서적 펴냄/5000원.

東大 불문연 '한국불교문화사전'...700여 표제어 상세 설명

용어를 알면 불교문화가 보인다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지름길은? 배우고 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아무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다. 용어에 대한 폭넓고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면 쉽게 불교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바라춤이나 나비춤의 의미를 모르면 영산재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 영산재의 의미를 모르는데 바라춤이나 나비춤을 이해 할 수 없듯이, 결국 용어에 대한 알음알이라도 있어야 시연을 보면서 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영산재에만 해도 수많은 용어가 있다. 영산재에 동원되는 용어들이 영산재물의 뼈대이므로, 불교문화의 이해는 용어의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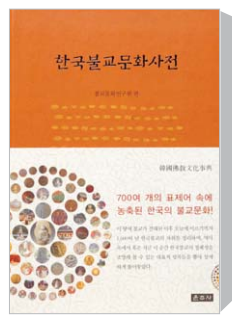
사람들이 불교를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도 용어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혜원)이 불교문화사전을 펴낸 이유도 용어를 통해 불교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700개의 표제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았다. 불교문화 전 분

야에 동원되는 용어가 700개를 훨씬 초과하겠지만, 우선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을 주제별로 모은 것이다. 역사 인물 사찰 건축 회화 조각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용어들을 한 권의 책으로 만날 수 있다. 표제어에 대한 해설을 가급적 평이하게 함으로써 불교문화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표제어에 따라 사진을 첨가하기도 했다.

부록으로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불교문화재의 도해와 세부 명칭이 설명됐다. 또 불교문화 체험을 주도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리스트도 수록했다.

불교문화연구원은 이 사전을 시작으로 개정 증보판을 계속 낼 생각이다. 또 외국인들이 한국불교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역본도 낼 계획이다. 영역 작업은 이미 시작했으며 책은 내년 즈나올 예정이다. (운주사, 2만5000원)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웃기는 이야기' 속에 담긴 삶의 지혜



백유경 이야기
 오심 스님 지음/휴먼앤엑스 펴냄
 1만3500원

부처님은 무지한 중생에게 깨침의 인연을 만들어 주기 위해 '방편설(方便說)'을 사용했다. 듣는 사람의 상황과 지식 정도 혹은 마음 상태에 따라 적절한 비유를 들어 깨우침의 길을 안내 한 것이다.

<백유경>은 백 가지의 비유를 담은 가르침이다. 5세기 때 인도의 상가세나 스님이 편찬한 100개의 이야기인데 현재는 98개가 전한다. 사람이 사는 가장 현실적인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참다운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준다. 오심 스님이 불교 TV에서 강의한 내용을 추려서 한권의 책으로 묶은 <백유경 이야기>는 원래의 경전이 가지고 있는 해학과 유풀 속에 담긴 깨침의 요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오심 스님은 <백유경>은 읽는 사람에게 '어쩔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는 측은지심과 '혹시 나는?' 하는 역지사지 그리고 '나도 그랬구나' 하는 자아반성을 던져 줌으로써 유머에서 삶의 통력을 안겨준다고 말한다.

견성의 지름길, '보는 놈'을 보는 것



보는 놈을 보라
 전재근 지음/초록 펴냄/1만원

불자가 아닌 사람도 <반야심경>이란 경의 이름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행사에서 봉송되는 <반야심경>은 삼귀의 사용서원 등의 찬불가와 함께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암송하는 경이기도 하다.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읽히는 <반야심경>이지만 그 대의와 상세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방대한 반야부 경전의 엑기스라는 말만 들었지 묵구멍으로 넘겨 소화시키기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였고 서울대불자회를 창립한 중심이었던 전재근 박사에게 <반야심경>은 각별하다. 전 박사는 한 선지식(경우 스님)의 강의를 통해 <반야심경>의 요체를 분명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나누고자 <보는 놈을 보라>를 펴냈다. 핵심은 복잡하지 않다. 책의 제목 그대로 '보는 놈'을 '보라'는 것이다. 보는 자(subject)와 불대상(object) 가운데 무엇을 봐야 하는가를 바르게 알라는 것이다. 물론 '보는 놈'을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여 지는 것은 모두가 '공(空)'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쁜 일? 더 좋아지기 위한 것



조아질라고
 범일 스님 지음/불광출판사 펴냄
 1만1000원

"지금 힘든 일은 나중에 일어날 좋은 일을 대비해 생긴 것이다."

경기도 양평 서종사에서 사이버 도량(www.joajillrago.com)을 꾸리며 회원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범일 스님은 모든 일은 좋아지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길 권한다. 스님이 펴낸 <조아질라고>도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보여준다.

범일 스님은 서종사를 거닐고, 해우소를 청소하고, 차를 마시는 등 일상 생활 속에서 떠오른 단상을 1999년부터 사진과 에세이 형식으로 올려왔다. 여기서 위안과 힘을 얻은 사이버 도량 회원들이 104편으로 직접 추려 책으로 엮여낸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하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일들도 '조아질라고' 처럼 현재 진행형'이라는 스님은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휴여 직장도, 일도, 인연이 다 된 것이 있다면 미련을 두지 말고 보내십시오. 그 꽃이 지고 나면 또 다른 꽃이 나타나듯이 어쩌면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한다. 또 스님은 "어떠한 치료를 해도 손목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화두참선을 하던 중 '조아질라고 손목이 아픈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정말로 손목 통증이 사라지게 됐다며' '조아질라고'의 효능을 설명하기도 한다.

스님은 단언한다. "언제든 힘든 일이 올 수 밖에 없다. 해는 뜨고 지고 산을 오를 사람은 내려오듯 모든 일은 좋아지려고 일어나는 것이다."

이나는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법륜스님의 죽문죽설 | 법륜 | 정토 |
| 2 |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 월호 | 운주사 |
| 3 |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 월호 | 마음의 숲 |
| 4 | 아름다운 마무리 | 법정 | 문학의 숲 |
| 5 | 인과경 | 현담 | 선 |
| 6 | 실과 영혼의 비밀 | 대승불교강우회 | 양우 |
| 7 |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 월호 | 불광출판사 |
| 8 | 광명진언기도법 | 일타, 김현준 | 효림 |
| 9 |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 | 강선희 | 불광출판사 |
| 10 |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 법정 | 조화로운 삶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02)953-7181